

다산포럼



김태희
역사연구자·다산연구소 대표

12월 3일 그날 밤, 사업팀과 함께 야근 중이었다. 누군가 '비상계엄'이 발령되었다고 말했다. 너무 비현실적인 단어에 당장 바쁜 사업 마감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낯짜를 남겨 새벽 1시쯤 귀가하는 택시에서 오래된 계엄의 추억이 떠올라 심란했다. 일행은 무사 귀가를 서로 확인하면서 아침에 광화문에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귀가하여 TV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살펴보니, 이미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가결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한참 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해제 담화(4시 30분경)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는 나중에 알았다.

오늘의 상황에서 주목되는 책이 있다. 트럼프의 등장에 충격을 받아서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크로스, 2018)다.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명제가, 잠재적 독재자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고 서서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었다. 잘 아는 히틀러도 그랬다.

지은이는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경고 신호를 제시했다.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2) 정치

민주주의 파괴자에 맞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다. 좀더 구체화한 체크 사항을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윤 대통령의 행위와 부합했다. 윤 대통령은 아예 선을 넘었다. 평온한 시기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거제도를 부정하려고 행동하지 않았는가.

다행히도 우리는 잠재적 독재자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할 힘이 있었다. 우선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기민하게 초동 대응했다. 놀란 시민들이 몰려들어 국회를 지켰다. 본의 아니게 동원된 계엄군 병사들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민주화운동으로 정취한 87년 헌법도 가능했다. 국회해산권을 삭제했고, 헌법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과거 쿠데타 세력을 사후에라도 응징했던 경험도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날 밤 민주주의는 그냥 지켜지지 않았다.

위 책에 의하면, 잠재적 독재자를 걸러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민주주의 문지기인 정당에 있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은 실패했다. 나아가 명백한 위헌적 계엄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국민의힘 다수는 민주주의 파괴자를 비호하고 있다. 당이 이제는 극단주의 정당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위 책은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적인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절제'를 제시했다. 극단적 정치 분열 상황이 되면, 정당 간에 정상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적대적 투쟁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려는 유혹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 결국 이 틈에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관용과 절제, 정말 필요하다. 선이 악과 싸울 때 약한 방법으로 승리하면 결국 악이 승리하는 것이다. 수

단과 방법을 가려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를 확인하고 공존하면서 평화적으로 경쟁하는 룰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이미 민주주의 파괴자가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단계다. 이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파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된 타협이나 안이한 대응은 금물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그런 허점을 틈타 등장했고 강해져서 공동체를 독재와 파멸의 길로 몰고 갔다. 이제 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히틀러와 같은 파시즘이 바이마르 헌법체제를 파괴한 것을 반성하여 나온 개념이 '방어적 민주주의'다. 헌법재판제도와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그 대표적 내용이다.

지은이는 트럼프가 몰라난 후인 2023년 후속편으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크로스, 2024)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희망했지만, 현실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이어졌다.

헌법 위반행위임이 더욱 밝혀진 지금에도 민주주의 파괴자는 불확실성을 조성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거짓말과 자기당착과 적반하장의 '아무말 잔치' 속에 극단주의자를 향해 선동하고 있다. 정당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 온갖 트집을 잡는 걸 보면 불복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게 국민의힘도 동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기로에 섰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꾀한 위헌·불법행위를 통해 독재의 길로 들어서다 딱 걸렸다. 우리 사회가 정해 놓은 사법 제도에 따라 민주주의 파괴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단호하게 물음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한다. 상식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다. 민심이 함께한다.

청춘 특독



김해리
동신대 한의학과 1학년

2024년 12월 31일 밤,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이 울렸다. 어느 때와 달리 희망찬 퍼포먼스는 없었고, 국가 애도 기간의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2025년 1월 1일 이른 아침,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봉화산 정상에서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했다. 주요 인사들의 따뜻한 신년사가 이어졌지만, 희망찬 시작을 기대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무거웠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비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사고가 시민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희생되었고, 이는 국가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우리 가족은 이태원에 살고 있다. 생동감 넘치던 골목은 나에게 일상의 일부이자 추억의 장소였지만, 2022년 참사는 그 기억을 시린 비극으로 바꿔놓았다. 긴급 속보로 보도되던 압사 현장은 나에게 너무도 익숙한 거리였다. 여전히 달밤의 소소한 산책길에서조차 그 현장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슬픔과 공허함이 불현듯이 밀려오곤 한다. 또한, 광주 유족들이 많았던 이

새해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연대의 힘

번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여파는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 깊고 진한 상처를 남겼다.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국가적 비극을 넘어 아주 개인적인 아픔이 된 것 같다.

2014년 4월 16일은 평범한 하루였다. 국어선생님께서 인사와 함께 진도 바다에서 내 또래 고통학생들이 탄 배가 침몰했는데 대부분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셨다. 당시에는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며 희망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같은 날 저녁, 반대되는 보도를 접하고 내가 느낀 무력감과 슬픔은 여전히 생생하다. 세월호 사건은 나에게 '안전'과 '책임'의 가치를 새기게 한 사건이었다.

요즘 동네에서는 대통령 탄핵 시위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권력 구조가 신뢰를 잃자, 시민들은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한파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적 불안, 정치적 불신, 그리고 반복되는 재난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일상조차 지키기 어려울만큼 현실 앞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국정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참 마음 아팠고 무수한 혼란 속에서 사회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약 80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 이웃의 이야기이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한다. 왜 우리는 여전히 같은 비극을 반복할까? 사회시스템의 부실과 책임 방기 문제의 원인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 깊은 자성이 필요

하다.

그러나 우리는 연대의 힘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16년 촛불 혁명에서의 단합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7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던 일은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연대를 다시 한 번 되살리는 것 아닐까? 내 옆의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상호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 분노와 좌절을 넘어 변화와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자. 이를 더면, 지역 사회에서 안전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이나 비상 대응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작은 실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22년 이후의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일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희망은 언제나 그랬듯, 우리 곁에 있다. 서로를 보듬는 연대의 힘이아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2025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비극을 피하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것이다. 더 단단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연대의 힘을 내야 한다.

교권 강화와 대학의 역할

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재작년 여름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교사가 국회 앞에서 피맺힌 목소리로 교권 강화를 절규했던 모습은 한국 교육사의 비극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대보다 더 나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한국 사회는 맹질서 처방으로 사태 모면

에 급급할 것이다. 교권 강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경쟁교육 탓이다. 상대 평가로 학생을 줄 세우는 교육이 존재하는 한 교권 강화는 연목구어다. 줄 세우기 교육에서 교사는 '지식 전달자'와 '숫자 관리자'일 뿐이다. 그래서 교권을 다시 세우려면 근본 원인의 경쟁교육을 완화해야 하는데 여기서 대학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비근한 예가 제주대가 지역균형선발에 수능을 없앤 걸 들 수 있다. 제주대는 2026학년도부터 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등 간판 학과에 수능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제주대의 파격적인 입시 변화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일고 있는 IB(국제바칼로레아)의 열풍과 무관치 않다. IB는 제주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서 표선의 IB 학교에 다니려는 학생이 줄을 잇고 있다. 표선초는 몰려드는 학생들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표선고 학생이 최초로 수도권 의대에 합격함으로써 표선을 향한 발걸음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대의 변화는 김일환 총장이 주도했다. 김 총장

이 거점국립대 유일의 제도를 도입한 건 IB 교육으로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이다. 그는 표선고 학생들이 "눈빛이 살아있다"면서 "진정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살아있는 눈빛을 가진 학생이 많아지려면 경쟁교육이 완화돼야 하고, '친구가 적어 아닌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한 게 바로 수능 없는 전형이었다.

김 총장이 보지 못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교사의 권위'다. IB는 서-논술형 절대평가 특징이지만, IB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더 강화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며 교사끼리도 교사를 존경한다. IB 학교에서 이뤄지는 신뢰와 권위는 그저 얻어진 게 아니었다. IB를 관할하는 IBO의 치밀한 관리와 그걸 지키려는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제주대의 마중물이 한국 교육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되려면 대학들이 움직여야 한다. 다행히 한국 대학 입시는 수시가 주류다. 이미 수시에는 수능의 역할을 축소한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는 개별 대학의 몫이다. 대학의 재량이 상당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다.

입시에서 공정은 제1의 가치이지만, 한국 교육은 이 가치만 쫓다가 더 큰 걸 잃어버렸다. 공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이 성장해 교사를 존경하면 교권 강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K-에듀의 시작은 교사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그 선행에 교권 강화가 있어야 한다.

社說

'우물쭈물'로尹 수사 끝드타임 허비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겨져 논란이다. 그것도 경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영장 집행 마감에 임박해 떠넘김으로써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밤 9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같은 사실은 영장집행 마감일인 6일 오전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윤 대통령 체포를 외치며 며칠째 눈속에서 밤을 지새 집회 참가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들은 지난 3일 1차 집행에서 경호처에 막혀 5시간 30여분만에 철수한 것을 두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애써 아쉬움을 달래면서 2차 집행에선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했다. 하지만 느닷없이 경찰에 집행을 넘기면서 의욕만 남쫓지 경험

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집행권은 경찰에 넘기지만 수사권은 자신들이 행사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행태는 우물쭈물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끝드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마찬가지다. 논란 끝에 체포영장 집행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하기로 경찰과 정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한 만큼 2차 집행에 나설 때는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차 집행 때보다 더 격렬한 경호처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엄정한 법 집행으로 헌법 질서를 세우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계엄선포 계기로 외국 언론 재조명 받는 '5·18'

비상계엄 선포이후 한국의 정치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외국 언론이 '5·18'을 집중 조명할 기세를 개재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응과 그들이 왜 탄핵 시위에 앞장서는지,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룬 기사였다.

프랑스 대표 신문인 '르몽드(Le Monde)'는 최근호 국제면에 '한국에는 광주 대학살의 상처가 또렷하게 남아있다'라는 제목의 토크 기사를 한 페이지의 절반 가량을 할애해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국립 5·18민주묘지의 영안소 사진이 첨부됐다.

르몽드의 일본 주재 특파원 필립 메스메르 기사는 지난 12월 광주를 직접 찾아 80년 5월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을 방문하고, 5·18 관계자들과 탄핵 시위 현장 등을 두루 취재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는 전일 빌딩 내부를 둘러본 뒤 '광주 도심에 있어 시민군이 점거했던 전일빌딩에는 균용혈

기에서 발사된 총탄으로 인해 갈라진 흰색 석고벽이 학살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며 5·18의 잔학상을 소개했다. 또한 실제 5·18 시민군들이 당한 고문과 옥살이 증언 등도 곁들였다.

특히 기사는 광주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트라우마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1980년 당시 한국 정치와 광주의 상황까지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박정희 사망 사건과 서울의 봄, 시민 저항 운동, 서울의 봄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전두환 군부와 이후 벌어진 광주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 민주주의 운동사의 흐름을 훑고 있다.

특집 기사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광주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기여했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정신을 일깨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의 바람대로 탄핵 정국이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

無等鼓

"고통 없는 곳 안전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아름다웠던 기억들로 가득 채우소서 편히 쉬소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추모객들이 남긴 포스트잇과 방명록 글귀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애절함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있다.

참사가 일어난 지 9일째, 지역사회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다. 그렇지만 이번 참사를 겪으며 '공동체의 힘'을 절감한다. 전국 각지에서 5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에서 "한 공동체가 슬퍼하기로 결정한 죽음을 들어다보면 그 사회가 욕망하는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며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생각하도록 주어진 영역을 확장해 준다"며 공격 애도를 말한다.

"...왜 죽었고, 누가 죽었는지에 대한 정연한 이야기가 필요해진다. 파편으로 밖에 남을 수 없는 외로운 사적 애도를 위해 공동체가 함께 해 줄 수 있는 일은, '왜', '무엇을', '어떻게'와 같은 구성 성분이 제 자리를 찾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완성시키는 것조차 공적 애도에서 진상 슬픔과 비통에 잠겨있는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자유가족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수습과 유가족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됐다. 광주시 해외 자매·우호 도시 50여 곳에서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서한문이 오고 있다.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공동체에 의한, 공동체를 위한 슬픔과 애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공동체의 애도

자발적으로 무안을 찾아 슬픔과 비통에 잠겨있는 유가족의 아픔을 나눴다. 목포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 부부는 300인분의 커피와 차를 준비해왔으며 무안 여성농업인들은 떡국 봉사를 했다. 특히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유명 셰프 등 요리사 30여명도 전복죽을 끊어 제공했다. 공동체 모두의 애도는 깊은 슬픔을 이겨내게 했다. 그러나 이번 참사가 사적 애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나아가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애도를 해야 한다. 저널리스트 김인정은 '고통 구경하는

기고



문승태
국립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

대학이 교권 강화라는 한국 교육의 꿈을 이루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교권 강화-한국 교육의 꿈'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한국 교육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문화를 가진 한국에 교권 강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대학이 교권 강화에 가까이 선봉장이 돼야 한다. 교육과 연구에 매달려도 모자랄 대학이 왜 교권 강화의 선구자가 돼야 하는 물음에 '초중등 교육이 살아야 대학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해주고 싶다.

교권 강화는 당사자인 교사만큼이나 한국 사회가 원하는 것이지만 쉽게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뒷걸음 중이다. 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 66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3년 97건, 2024년 8월 까지 193건으로 증가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범죄도 11건이나 발생했다. 2023년 발생한 서울 서초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 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